

# X세대와 Y세대의 자녀돌봄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을 중심으로

Childcare Time of Working Mothers and Fathers  
: A Comparison of Time Use of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서지원\*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강사 이정은\*\*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eo, Jiwon  
Dept. of counseling, Dankook University  
Lecturer Lee, Jung Eu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초록〉

본 연구는 X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생활시간 구성과 자녀돌봄시간을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2014, 2019년)를 사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n=2,287)의 시간일지와 질문지 조사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X세대와 Y세대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2014년에는 어머니의 경우 통근시간에서 X세대가 Y세대보다 더 길었고, 아버지의 경우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서 Y세대가 X세대보다 더 길었다. 2019년에는 Y세대 어머니의 통근시간이 더 길었고, 아버지의 경우 모든 생활시간에서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조사시기를 통합하여 X세대와 Y세대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는 Y세대에서 수면시간이 X세대보다 길었고, 아버지는 Y세대에서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이 X세대보다 더 길었다. 셋째,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두 세대에 걸쳐 유사하게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X세대와 Y세대 간 공통으로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여가시간이 짧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는데, X세대 아버지의 경우, Y세대 아버지와 달리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성역할태도가 덜 전통적일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어머니의 경우 두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우 X세대와 Y세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과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에서 이와 같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자녀돌봄, 성차, 생활시간, 가족정책, 세대

\*주저자: 서지원(jiwonseo@mail.knou.ac.kr), <https://orcid.org/0000-0002-8012-8252>

\*\*교신저자: 이정은(jjia22@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4105-2600>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time use and childcare time use of working mothers and fathers of Generations X and Y,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nd factors affecting childcare time. We analyzed the lifetimes of working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n=2,287) using Statistics Korea's Time Use Survey for 2014 and 2019.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ing the lifetimes of Generations X and Y, in 2014, Generation Y mothers had longer commuted times, whereas for father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Second, comparing the time use of Generations X and Y, regardless of the survey period, Generation Y mothers had longer sleep times than their counterparts, while Generation Y fathers had longer time in sleep, home management, and childcare than their counterparts. Third, in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parents' childcare time for mothers of both generations, the less sleep times, mealtimes, working times, commuted times, home management times, and leisure times, the longer the childcare times. In the case of fathers, for Generations X and Y, the less sleep times, mealtimes, market work times, commuted times, and leisure times, the more childcare times. However, in Generation X fathers, home management time and the gender role attitude affect childcare time. While the generation gap was not clear for mothers, it was confirmed for fathers. Therefore, it was proposed not only gender differences but also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provide implications for child care policies, especially for fathers, in community care support systems inclu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Key words:** childcare, gender differences, time use, family policy, generations

## I. 서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 기술, 경제, 가치관의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 가운데 특정한 세대(generation)로 구분 짓고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세대라는 개념은 개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며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손정희·김찬석·이현선, 2021). 특정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 있어 뚜렷한 특성을 가지며, 결국 그 차이는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박재홍, 2001).

지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없이 낮은 0.72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간의 저출산정책을 넘어 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돌봄 지원이 부족하며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5년 단위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2005년 1.08 수준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가는 부모 집단 자체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노동에도 종사하는 세대는 주로 X세대와 Y세대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세대별 생활시간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저출산정책을 비롯한 가족정책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책의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부모의 생활 시간 배분에 대해 X세대와 Y세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세대 차원의 접근은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구분되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도 세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기 다른 세대에 속하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에 따라 생활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특히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X세대와 Y세대 부모의 자녀돌봄 특성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고용노동 부문을 비롯한 가족정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X세대와 Y세대의 특성

X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베이비붐세대 다음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성장하였고,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 특성을 지녔다(주소현·김정현, 2011). 정치적으로는 청소년기에 민주화를 경험하고 문민정부 하에서 성장하였으며(김우성·허은정, 2007),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표현과 개성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 X세대는 억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반항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재홍, 2001).

한편, Y세대는 X세대의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Y세대와 Y세대의 다음 세대인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로 이른바 ‘MZ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는데, 이때에는 Y세대보다 Y세대를 지칭하는 첫 글자 M을 사용한 것이다. 지난 1992년 미국사회의 세대를 연구한 Strauss와 Howe의 저서 “Generations :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에서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이르는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세대는 청소년 시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여 미디어의 영향에 민감하고(김우성·허은정, 2007), 유복한 유년기를 겪었지만 사회진출시기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험으로 인해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민주화가 정착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이유로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명령과 통제는 전통적인 방식의 관리를 거부하고 현실적이며, 직장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 성취나 일과 삶의 균형을 소중히 여긴다. 사회에 활발히 진출하는 시기가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와 겹쳐 취업은 물론, 결혼·출산 연령의 범위가 매우 넓게 분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조현승 외, 2017).

### 2. X세대와 Y세대의 자녀돌봄

전반적인 가족생애주기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자녀양육기는 일하는 부모가 일-가족 양립에 따른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시기에 해당하며(이인정·김미영, 2014), 이 시기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인 아버지의 돌봄 참여 필요성이 높아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채화영, 2012).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발달특성상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고 관련된 가사노동시간도 늘어난다. 최근 들어 가정관리나 자녀돌봄 등 가사노동 전반에 대한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이정은·서지원, 2021),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돌봄 부담이 아버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X세대와 Y세대 부모의 세대별 자녀돌봄 특성을 다루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X세대 부모

X세대 아버지는 성장과정에서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경험하고 관찰하였으나, 이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된 시기에는 양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으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아버지 역할이 요구되는 데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X세대 아버지는 이처럼 역할혼동을 경험하면서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역할모델을 발견하기 어렵고 적절한 조언을 받을 기회도 부족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성역할 수용 정도가 낮고 아버지 역할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며 돌봄역량이 낮아 가정생활에서 스스로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X세대는 소비지향적인 특성이 있고,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를 포기할 수 없지만 변화된 성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낮은 위상으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X세대 아버지는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습득한 것과 현대사회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아버지상과의 괴리로 인해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가정관리나 자녀돌봄에 있어 배우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며(김수정·조효진, 2016), 이로 인해 가부장적 남성상에서 남녀평등으로의 성평등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의 전환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즉, X세대 남성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적응과정에 있어 이전 세대와는 구분되지만, 일-가족 양립에 따른 다중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2) Y세대 부모

Y세대(밀레니얼세대)는 다음 세대인 Z세대와 묶어 주로 'MZ세대'라고 부르며,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들 세대의 문화 향유 특성이나 소비패턴, 직장에서 태도에 대한 비교 담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를 둔 Y세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Y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서의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태도나 양상을 다루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Y세대의 가정생활은 가사노동의 최소화를 위해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을 이용하고, 가정 간편식을 이용한 식사를 선호하며, 부부는 동반자라는 의식이 강하고, 개인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매일경제, 2019). 이러한 특징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아와 김주희(2022)의 연구에 의하면 Y세대 어머니의 경우 이전세대에 비해 가사시간은 감소하고 가족돌봄 시간이 더 길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이전세대에 비해 가사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이 모두 증가하였는데(이현아·김주희, 2021) 이는 젊은 부모일수록 부부공동육아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조윤진, 2017).

박미현(2022)의 연구는 Y세대와 Z세대 부모를 아우르는 MZ세대 자녀돌봄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세대와는 달리 부모되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들은 삶의 유희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였으며, 부모로서의 삶과 자기자신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즉,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곧 자기정체성으로 여겼던 전통적 부모관과 달리, 자신으로서의 삶을 중시하는 부모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90년대생 부모는 자녀돌봄 과정에서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고를 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 SNS, 분유와 시판 이유식 또는 반찬가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에서 시간가치와 경제성을 중시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를 돌보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Y세대 부모에게 있어 시설 이용은 필수적으로 간주되며, 돌을 전후한 영아기 자녀의 경우에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X세대, Y세대)에 따른 생활시간사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조사시기에 따라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에는 X세대와 Y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에는 X세대와 Y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X세대, Y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하루의 시간 구성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1999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는 한 사람의 응답자가 서로 다른 요일로 2건씩 작성하되, 하루 동안의 활동을 10분 단위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더불어, 생활시간조사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포함한 질문지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출생연도가 X세대와 Y세대에 해당하며 배우자와 한 명 이상의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고 평일에 수 입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을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이들이 작성한 2건의 시간일지자료 가운데 응답자 별로 평일에 작성한 1건의 시간일지만 무작위로 뽑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X세대와 Y세대가 주로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전체 통계청 생활시간 자료 가운데 2014년과 2019년 자료를 선정하였다. 각 세대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0년)의 선정기준에 따라 X세대는 1965~1979년 출생자, Y세대는 1980~1994년 출생자이며, 통계분석을 위해 총 2,287명의 시간일지와 질문지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은 기술통계를 통해 구하고, 각 세대별 생활시간사용의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검정을, 미취학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을 사용하였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b>인구사회학적 변수</b>	
성역할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함.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분리에 대해 반대하는 성향이 강함을 의미함 (1=적극 찬성, 2=약간 찬성, 3=약간 반대, 4=적극 반대)
교육수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한 교육수준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비수도권(수도권 이외 지역)
직종	관리·전문직(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직(서비스 종사자와 판매종사자), 조립·기능직(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직(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군인(직업군인, 2014년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아 2019년에만 적용) * 생활시간조사의 10가지 직종분류를 7가지로 재분류함
<b>생활시간 변수</b>	
수면시간	잠을 잔 시간과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식사시간	식사, 간식 및 음료 섭취하는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 (단위: 분/일)
시장노동시간	수입노동에 사용한 시간 (단위: 분/일)
통근시간	출근과 퇴근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가정관리시간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정리, 주거·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유지, 상품·서비스구입, 기타가정관리를 포함한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자녀돌봄시간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 놀이주기, 미취학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씻기기, 등하교 돕기, 숙제·공부봐주기, 선생님과의 상담, 학교방문 등을 포함한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여가시간	자원봉사, 교제, 참여, 문화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합계(단위: 분/일)
<b>조사시기</b>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연도(2014년=1, 2019년=0)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시기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시기별로 세대에 따른 평균연령을 보면, 2014년 X세대 어머니는 37.6세, 아버지는 38.2세, Y세대 어머니는 30.5세, 아버지는 30.8세였고, 2019년 조사에서는 X세대 어머니는 41.4세, 아버지는 41.9세, Y세대 어머니는 34.2세, 아버지는 34.5세였다. 교육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X세대 일하는 어머니 중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경우는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고, 전문대졸은 약 7% 감소하였으며, 대졸이상은 약 7% 증가하였다. Y세대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감소하고 대졸이상은 약 17% 증가하였다. 일하는 아버지의 경우 X세대는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고졸은 약 10%, 전문대졸은 약 19% 감소하고, 대졸이상은 약 29% 증가하였다. Y세대의 경우에도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감소하고 대졸이상은 약 16%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시기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더 많았다. 부모의 직업분포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 2014년에 X세대는 관리·전문직이 4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33.8%), 서비스·판매직(12.2%) 순이었으며, Y세대는 관리·전문직이 40.7%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3.3%, 서비스·판매직 13.9%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어머니의 직종을 살펴보면 X세대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관리·전문직이 40.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30.2%)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종 분포는 X세대의 경우 2014년에 사무직이 30.6%로 가장 많았고, 관리·전문직(27.6%), 조립·기능직(26.0%) 순이었다. 2019년에도 순위가 동일하나, 사무직(34.6%)과 관리·전문직(31.8%)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조립·기능직(22.3%)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Y세대의 경우에는 2014년에 조립·기능직이 29.1%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26.0%), 관리·전문직(18.5%), 서비스·판매직(18.5%)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19년에는 사무직 30.5%로 가장 많았고, 조립·기능직(24.4%), 관리·전문직(23.3%) 순이었다.

### 2.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의 차이

#### 1) 조사시기(2014, 2019년)에 따른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

먼저 X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요 생활시간사용을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의 생활시간 중 통근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287)

변수		2014년				2019년			
		X세대		Y세대		X세대		Y세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M(SD)		M(SD)		M(SD)		M(SD)	
연령		37.6(2.9)	38.2(3.2)	30.5(2.6)	30.8(2.3)	41.4(2.9)	41.9(2.9)	34.2(3.3)	34.5(3.1)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지역	수도권	90(38.0)	239(35.1)	36(33.3)	91(40.1)	31(29.2)	99(33.9)	69(35.4)	162(36.7)
	비수도권	147(62.0)	441(64.9)	72(66.7)	136(59.9)	75(70.8)	193(66.1)	126(64.4)	280(63.3)
교육 수준	고졸이하	47(19.8)	146(21.5)	26(24.1)	41(18.1)	23(21.7)	43(14.7)	28(14.4)	53(12.0)
	전문대졸	78(32.9)	179(26.3)	44(40.7)	89(39.2)	27(25.5)	62(21.2)	64(32.8)	130(29.4)
	대졸이상	112(47.3)	355(52.2)	38(35.2)	97(42.7)	56(52.8)	187(64.0)	103(52.8)	259(58.6)
직종	관리·전문직	102(43.0)	188(27.6)	44(40.7)	42(18.5)	43(40.6)	93(31.8)	78(40.0)	103(23.3)
	사무직	80(33.8)	208(30.6)	36(33.3)	59(26.0)	17(16.0)	101(34.6)	57(29.2)	135(30.5)
	서비스·판매직	29(12.2)	76(11.7)	15(13.9)	42(18.5)	32(30.2)	22(7.5)	41(21.0)	54(12.2)
	조립·기능직	9(3.8)	177(26.0)	3(2.8)	66(29.1)	7(6.6)	65(22.3)	6(3.1)	108(24.4)
	단순노무직	17(7.2)	31(4.6)	10(9.3)	16(7.0)	6(5.7)	8(2.7)	13(0.7)	26(5.9)
	농림어업	0(0)	0(0)	0(0)	2(0.9)	1(0.9)	1(0.3)	0(0)	1(0.2)
	군인					0(0)	2(0.6)	0(0)	15(3.4)
	n	237(100)	680(100)	108(100)	227(100)	106(100)	292(100)	195(100)	442(100)

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X세대가 9분 더 길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Y세대가 각각 2분, 7분 더 길었다.

다음으로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위의 방식대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 통근시간에서 X세대와 Y세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과 달리 Y세대 어머니가 X세대보다 통근시간이 9분 더 길었다. 아버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생활시간은 없었다.

## 2)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014년, 2019년 자료를 통합하여 X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 Y세대가 수면시간이 유의하게 길었고, 나머지 생활시간 변수에서는 두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Y세대가 X세대보다 수면시간, 가정관리시간, 자녀돌봄시간에서 시간사용이 유의하게 많았다. 즉, 어머니의 경우 수면시간 외의 다른 시간 구성에 있어서 X세대와 Y세대

〈표 3〉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 차이 검증(2014)

변수	어머니				아버지			
	X세대	Y세대	평균	t <sub>(X세대-Y세대)</sub>	X세대	Y세대	평균	t <sub>(X세대-Y세대)</sub>
수면시간	7:27	7:38	7:30	-1.6	7:20	7:29	7:22	-1.5
식사시간	1:46	1:42	1:45	0.8	1:57	1:57	1:57	0.9
시장노동시간	6:10	6:30	6:16	-1.4	7:56	8:02	7:57	-0.7
통근시간	1:03	0:54	1:00	2.0 *	1:18	1:20	1:18	-0.6
가정관리시간	1:45	1:36	1:42	1.2	0:12	0:14	0:13	-1.0 *
자녀돌봄시간	1:48	1:47	1:48	0.1	0:31	0:38	0:33	-2.0 *
여가시간	1:38	1:36	1:38	0.3	2:11	1:59	2:08	2.1
	n	237	108	345	680	227	907	

\*p<.05, \*\*p<.01, \*\*\*p<.001

〈표 4〉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 차이 검증(2019)

변수	어머니				아버지			
	X세대	Y세대	평균	t(X세대-Y세대)	X세대	Y세대	평균	t(X세대-Y세대)
수면시간	7:32	7:47	7:41	-1,6	7:25	7:31	7:29	-1,1
식사시간	1:47	1:39	1:42	1,6	1:50	1:49	1:49	0,4
시장노동시간	5:33	5:52	5:45	-1,2	7:36	7:39	7:38	-0,3
통근시간	0:52	1:01	0:58	-2,0*	1:24	1:20	1:21	1,2
가정관리시간	1:48	1:35	1:40	1,5	0:18	0:20	0:19	-0,9
자녀돌봄시간	2:04	1:56	1:58	0,8	0:34	0:40	0:38	-1,8
여가시간	1:55	1:54	1:54	0,1	2:18	2:24	2:22	-0,9
n	106	195	301		292	442	73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X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의 차이 검증

변수	어머니				아버지					
	X세대		Y세대		X세대		Y세대		t(X세대-Y세대)	
	M(SD)	M(SD)	M(SD)	M(SD)	M(SD)	M(SD)				
수면시간	7:28	(68,7)	7:44	(73,5)	-2,8**	7:22	(72,1)	7:30	(75,7)	-2,3*
식사시간	1:46	(38,4)	1:40	(39,7)	1,9	1:55	(39,5)	1:51	(38,6)	1,9
시장노동시간	5:58	(132,4)	6:05	(119,6)	-0,7	7:50	(114,4)	7:47	(112,6)	0,6
통근시간	0:59	(37,3)	0:59	(36,8)	0,2	1:20	(42,7)	1:20	(46,5)	-0
가정관리시간	1:46	(68,4)	1:36	(67,6)	1,9	0:14	(27,9)	0:18	(35,0)	-2,8**
자녀돌봄시간	1:53	(83,7)	1:53	(77,0)	0,1	0:32	(42,2)	0:39	(47,7)	-3,3**
여가시간	1:43	(73,7)	1:48	(66,9)	-0,8	2:13	(76,1)	2:16	(83,0)	-0,6
n	343		303			972		699		

\* $p < .05$ , \*\* $p < .01$ , \*\*\* $p < .001$

어머니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우 Y세대 아버지가 수면시간과 함께 가사노동시간 즉,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X세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 3. X세대와 Y세대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X세대와 Y세대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변수, 생활시간 변수, 조사시기 변수를 포함한 중다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어머니 집단의 경우에는 X세대와 Y세대, 두 세대 모두 생활시간변수 중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은 자녀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집단의 경우에는 X세대와 Y세대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X세대의 경우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고, 가정관리시간은 길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대할수록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세대의 경우에는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여가시간이 자녀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X세대와 달리 가정관리시간과 성역할 인식 또한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X세대 아버지 집단에서만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와 Y세대 아버지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정관리시간은 성별과 아버지의 세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X세대와 Y세대 어머니는 가정관리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으나, X세대 아버지는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시간도 길었고, Y세대 아버지는 가정관리시간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4개 집단

〈표 6〉 X세대와 Y세대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예측 요인

	X세대 어머니		Y세대 어머니		X세대 아버지		Y세대 아버지	
	B	SE	B	SE	B	SE	B	SE
<b>인구사회학적변수</b>								
연령	-1.1	1.1	-1.2	0.9	-0.7	0.4	0.5	0.5
<b>교육수준(기준:고졸이하)</b>								
전문대졸	-3.9	8.4	-3.9	7.9	1.5	3.8	1.7	5.3
대졸이상	14.3	8.3	-3.4	7.9	-2.8	3.3	3.1	5.1
성역할태도	0.0	4.3	-1.1	4.3	4.0	1.5**	0.3	2.0
<b>생활시간변수</b>								
수면시간	-0.5	0.1***	-0.5	0.0***	-0.1	0.0***	-0.2	0.0***
식사시간	-0.6	0.1***	-0.7	0.1***	-0.1	0.0***	-0.2	0.0***
시장노동시간	-0.5	0.0***	-0.6	0.0***	-0.2	0.0***	-0.2	0.0***
통근시간	-0.6	0.1***	-0.7	0.1***	-0.1	0.0***	-0.2	0.0***
가정관리시간	-0.2	0.1***	-0.4	0.1***	0.2	0.0***	-0.0	0.1
여가시간	-0.6	0.1***	-0.7	0.1***	-0.2	0.0***	-0.2	0.0***
<b>조사시기변수(기준: 2019년)</b>								
2014년	-8.0	8.0	-8.8	6.9	-1.1	3.2	.3	2.0
상수	746.5	65.1	861.4	55.0	222.4	25.3	306.7	30.6
F값	38.6***		46.7***		22.1***		16.7***	
R <sup>2</sup>	0.6		0.6		0.2		0.2	
n	343		303		972		669	

\* $p < .05$ , \*\* $p < .01$ , \*\*\* $p < .001$

모두 조사시기 변수는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초기 자녀양육기에 속하는 일하는 부모의 생활시간사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X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2014년과 2019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시기별로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을 각각 비교하면 2014년에는 X세대 어머니의 통근시간이 더 길었고, Y세대 아버지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더 길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2019년에는 Y세대 어머니의 통근시간이 더 길었고, 아버지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조사시기를 통합하여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여 비교한 결과, X세대 어머니보다 Y세대 어머니가 수면시간이 더 길었고, X세대 아버지보다 Y세대 아버지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더 길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에는 X세대와 Y세대가 각각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에는 두 세대 모두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적었는데, X세대 아버지의 경우 가정관리시간은 길수록, 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반면, Y세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이 두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하는 부모의 성별과 세대별로 생활시간사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유사한 가족생애주기에 속하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관리나 자녀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이 X세대와 Y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일하는 어머니 집단에서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경우에도 2014년에만 세대 간 차이가 있었을 뿐 2019년 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X



세대와 Y세대의 일하는 부모로서의 생활시간은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 집단의 경우 세대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비슷한 패턴을 보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던 세대 변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좁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2019년으로 조사시기를 구분하여 X세대와 Y세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2014년과 2019년에 단지 통근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생활시간사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통근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김소영(2020)은 맞벌이 어머니의 통근시간이 육아지원시설의 돌봄시간대 차이로 인해 자녀가 초등 저학년 시기보다 미취학 시기에 더 길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최철환과 배호중(2021)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길고,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짧아진다고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사시기에 따라 세대별 통근시간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를 고려하였을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자녀의 존재나 어머니의 직종, 배우자의 소득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달리 가정관리와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에서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Y세대가 X세대보다 가정관리와 자녀돌봄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한 반면, 이러한 아버지 집단의 세대 간 차이가 2019년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가정관리시간에서 나타난 세대 간 변화는 뚜렷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가정관리시간은 Y세대에서 약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자녀돌봄시간은 두 세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사용이 늘어나는 생활시간이라는 점도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부모는 성역할 분리를 지향하지 않고 가정 내 성평등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봄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방식을 더 추구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 수가 줄어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돌본다는 선행연구(송유진, 2011; Johnston & Swanson, 2006)와도 같은 맥락을 갖는다.

둘째, 일하는 부모의 생활시간사용이 일반적인 성인 집단의 생활시간사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녀의 존재에 따른 돌봄 시간 투입 요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낮지만 개인의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대 이상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 사용은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4시간 49분, 4시간 47분으로 미세하나마 2분 정도 감소한 경향을 보인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어린자녀가 있는 일하는 부모의 여가시간이 감소하지 않았고 최대 25분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절대적인 여가시간 사용량은 전체 성인집단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4년은 1시간 36분~2시간 11분, 2019년은 1시간 54분~

2시간 24분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동일연령에 속하는 집단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여가시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조사에서 X세대는 3시간 46분, Y세대는 3시간 19분이었는데, 2019년 조사에서 X세대와 Y세대 모두 약간 늘어난 3시간 48분, 3시간 36분이었다. 이는 동일한 세대에 속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벌어지기보다는 약간이나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초기 양육기 부모가 개인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여가시간 부족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미흡하나마 돌봄의 부담을 조금 덜면서 여가시간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황이 된 것은 최근 들어 직장과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이 정착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최지은·이지원·김현경, 2021),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는 추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X세대와 Y세대 간 주요 생활시간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X세대보다 Y세대가 더 길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는 세대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수면과 연령의 관계에서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이은희, 2023; 이수현·이미준·서범준, 2022)와 유사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 집단의 경우 양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수면시간뿐이었고 다른 생활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수면시간 이외에도,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사용에서 X세대보다 Y세대가 유의하게 길었다. 이는 가정 내 성평등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Y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Y세대의 일하는 어머니는 X세대 어머니보다 가사노동 가운데 가정관리에는 시간을 덜 사용했지만 자녀돌봄에는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정관리와 관련된 활동은 상품대체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여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는 박미현(202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Y세대 아버지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성평등 의식이 높아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원숙연, 2014)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X세대와 Y세대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생활시간의 유형 중 수면시간, 식사시간, 시장노동시간, 통근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시간이 짧을수록 자녀돌봄시간이 더 길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세대별 예측 요인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X세대 아버지는 가정관리시간이 길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었으나 Y세대 아버지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X세대의 경우 가정관리와 자녀돌봄은 아버

지의 역할에 대한 현대의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X세대 아버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분리에 대해 이념적으로 반대할수록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르는 분위기에서 권위적인 아버지상을 경험한 X세대 남성은 자신이 아버지가 된 시기에 성평등 이데올로기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돌봄 역할에 대한 혼동을 경험하는 등 성역할 인식의 간극이 동일 세대 내에서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부부 간 가사노동의 공평한 분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소영과 진미정(201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Y세대 남성은 X세대 남성보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이전 세대보다 결혼이나 출산, 부모됨(아버지됨)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한국경제, 2024)는 점을 고려할 때, Y세대라는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됨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이들이 성역할 인식에 차이가 크지 않고 동질적임을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X세대와 달리 Y세대의 경우는 성역할태도 변수가 자녀돌봄시간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족 내 사회화의 산물인 동시에 정책이나 제도, 경제적 상황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김사현, 2015)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키우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우은복, 2002)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 내 성평등 인식을 고취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공동양육(co-parenting)의 실천방안 역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기 부모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서 성별과 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또 어떠한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X세대 또는 Y세대와 같은 세대로서의 특성이 자녀양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녀양육기라는 생애주기 자체의 과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비해 이전 세대와는 구분되는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더 젊은 연령대의 Y세대 아버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자녀돌봄 역할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가족친화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의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된 제도를 본인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입하여 시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최지은·김현경, 2019),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였으며(김화연·오현규·박성민, 2015), 아버지의 양육시간을 늘릴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최지은·김현경, 2019). 또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와 아버지 본인의 행복감도 높아져

(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 결국은 행복한 육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과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된 제도는 있으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직장 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호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더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가족센터 등에서 가정 내 남녀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실제로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여가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돌봄참여를 끌어내고 아버지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아버지됨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세대 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특정한 세대가 지닌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실천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돌봄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의 설정에서 아동권과 부모권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일상생활균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이 자녀의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걸친 발달시기에 부모와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아동권과 부모권이 모두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과제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로 우리사회가 처한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세대에 속하지만 자녀를 둔 집단과 자녀를 두지 않은 집단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생활시간사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라이프스타일이나 재무상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자료의 한계가 있다. 특정 세대가 지닌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시간자원 이외에도 인적자원과 재무자원 등 다양한 가족자원의 효과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가족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더 정교하게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특정 세대에 대한 구분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잘못 작용하지 않도록 연령뿐 아니라 소득계층, 가치관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기 부모의 수면시간이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통근시간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첨단기술의 도입 등을 예상하여 다양한 미

래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우리사회의 돌봄지원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돌봄지원 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수경 · 김해미 · 정미라(2018). 임신기 아버지의 가족친화적 직장조직문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1), 1-20. DOI : 10.13049/kfwa.2018.23.1.1.
- 2) 김사현(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한국사회정책*, 22(1), 285-316.
- 3) 김소영(2020).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비교. *Human Ecology Research(HER)*, 58(2), 255-266. DOI : 10.6115/fer.2020.019.
- 4) 김소영 · 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 2004-2014년 생활시간사용 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5) 김수정 · 조효진(2016). 미취학 자녀를 둔 X세대 남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과 세계*, 40(1), 185-213.
- 6) 김우성 · 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7) 김화연 · 오현규 · 박성민(2015). 공공 및 민간 조직의 가족친화제도가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 갈등에 도구적 지지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2), 483-511.
- 8) 매일경제(2019.04.04). 밀레니얼 세대의 가족: 새로운 가족의 탄생. <https://www.mk.co.kr/news/culture/8758498>에서 2024.05 인출.
- 9) 박미현(2022). 90년대생 MZ세대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11)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12) 손정희 · 김찬석 · 이현선(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의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 202-215.
- 13) 우은복(2002).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8(1), 83-106.
- 14) 원숙연(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1. DOI : 10.19067/jgs.2014.20.3.141.
- 15) 이수현 · 이미준 · 서범준(2022). 한국 성인남녀의 비판과 수면시간과의 연관성. *융합정보논문지*, 12(4), 219-230. DOI : 10.22156/CS4SMB.2022.12.04.219.
- 16) 이은희(2023). 수면시간과 신체활동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 632-628. DOI : 10.5392/JKCA.2023.23.01.632.
- 17) 이인정 · 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DOI : 10.16999/kasws.2014.45.3.127.
- 18) 이정은 · 서지원(2021).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추이 분석(2004-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103-120. DOI : 10.22626/jkfma.2021.25.3.007.
- 19) 이현아 · 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간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DOI : 10.22626/jkfma.2021.25.4.006.
- 20) 이현아 · 김주희(2022). 세대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분석: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2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53.
- 21) 조운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DOI : 10.16935/EJSS.2017.33.2.003.
- 22) 조현승 · 이동희 · 고대영 · 김승민(2017).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1-174.
- 23) 주소현 · 김정현(2011). 세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태도 및 행동 분석: N, X, 베이비부머, 전생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 123-146.
- 24) 채화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Human Ecology Research(HER)*, 51(5), 497-511.
- 25) 최지은 · 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DOI : 10.5718/kcep.2019.13.2.145.
- 26) 최지은 · 이지원 · 김현경(2021).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맞벌이-공동양육 잠재집단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육아정책연구*, 15(1), 55-79.
- 27) 최철환 · 배호중(2021).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The Women's Studies*, 111(4), 97-138.
- 28)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cCd=10&idxCd=F0009>에서 2024.05 인출

- 29) 한국경제(2024.02.27). 일하는 여성 62% "애 안 낳겠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40211>에서 2024.05 인출.
- 30)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 509-519.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199-006-9021-3>.

- 투 고 일 : 2024년 03월 15일
- 심 사 일 : 2024년 03월 28일
- 계 재 확정 일 : 2024년 05월 09일